

베끼거나 누가 써주거나_

표절과 대필



‘책세상문고·우리시대’와 ‘세계사시인선’은 이가 하나씩 빠져있다. ‘책세상문고·우리시대’는 『나, 아바타 그리고 가상세계』(019번)가, ‘세계사시인선’은 『지느러미가 아름다운 사람』(27번)이 각기 문고와 시집시리즈의 출간목록에서 사라졌다. 남의 것을 베끼거나 누가 써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나, 아바타 그리고 가상세계』는 같은 문고시리즈에서 비슷한 시기에 책을 펴낸 어떤 필자의 논문을 표절했다고 한다. 『지느러미가 아름다운 사람』의 수록 작품은 실제로는 어느 베스트셀러 작가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출판·문학·학술계에서 대필과 표절은 흔한 일이다. 하지만 표절하고 대필한 책에 대해 출판사가 ‘제 살을 도려내는 일’은

그리 흔치 않다. 쉬쉬하거나 부인하거나 말이 되지 않는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게 보통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책세상의 ‘용단’은 출판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표절

박덕규 연작소설 『날아라 거북이!』(민음사, 1996)에 수록된 「날아라 도적떼!」는 출판에서 표절의 문제를 우스꽝스럽게 다룬다. “문제는 일곱 권짜리 대하소설 『밤의 도적』, 바로 청록의 최신 베스트셀러로부터 발단되었다. 한 무명작가가 암흑가 청부 살인자들의 실화를 신나는 액션 드라마로 엮은 『밤의 도적』의 상당 부분이 1970년대 발표된 세 권짜리 장편소설 『섬나라 도적들』의 한 무인도 가상국 이야기를 베낀 것으로 판명되었다.”

청록출판사가 설립 5년 만에 처음으로 배출한 베스트셀러가 표절작으로 드러난 엄청난 사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출판사 구성원은 저마다 제 잇속을 챙기기에 바쁘다. 출판



최 성 일

출판평론가

robli@freechal.com



사를 영화사에 팔아넘기려는 사장은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 “게다가 여기 계시는 분들만 알고 있고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기밀 사항이지만, 최근에는 작가까지도 믿을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작품을 남의 것을 베껴서 써요. 내 양심으로는 당장 모든 책을 다 반품 받고 소각시키고 싶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일주일을 잠을 못 잤다니까요. 이래 가지고 출판을 더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대필

터질 게 터졌다. 그간 잠복해있던 한잼마씨의 대필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이런 생각이 든 출판계 종사자는 나만이 아닐 터이다. 의혹이 제기된 대필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는 것은 이름뿐인 저자대신 실제로 글을 쓴 필자가 엄연히 존재하고, 거기에 관여한 편집실무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출판 동네에서 소문이 퍼지는 속도는 엄청 빠르다. 비록 의혹제기 차원의 ‘찾잔 속 태풍’으로 그쳤어도, 한씨는 웬디 수녀가 아니라는 풍문은 출판계에 꾸준히 나돌았다. 한씨의 첫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을 때부터 말이다.

한잼마씨의 대필의혹 폭로는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한 ‘특종’이나, 나는 이를 후속 보도한 신문들에서 그 사실을 먼저 접했다. “아나운서 정지영씨의 『마시멜로 이야기』 대리 번역 논란에 이어 방송인 겸 화가 한잼마씨

(37)의 책들이 대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림 읽어주는 여자』(1999), 『나는 그림에서 인생을 배웠다』(2000·이상명진출판), 『화가의 집을 찾아서』 『그 산을 넘고 싶다』(2006·샘터) 등 한씨가 낸 책 전부가 대상이다.”(《경향신문》 2006년 12월 21일자)

명확한 경계선

한씨는 “편집자들의 도움을 받은 작은 부분만을 대필로 몰고 가는 것은 내가 책에 들었던 많은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경향신문》 2006년 12월 21일자)이라며 반발했지만, “편집자들의 도움을 받은 작은 부분”과 “대필” 사이의 경계는 의외로 명확하다.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감사의 말인 ‘감사 드립니다’를 보자.

“이 책이 완성되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많은 화가분들이야말로 제 영감의 원천이며 미술평론가 이○○ 선생님은 자료협조에 앞장서 주시고 여러 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갤러리 △△△ 이○○ 대표님, 갤러리 △△ 이○○ 큐레이터님, △△△의 이○○ 실장님, 갤러리 △△△ 손○○ 실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잼마씨가 자신의 첫 책을 펴내는 데 도움을 준 “많은 분들”에는 출판사의 편집실무자들이 당연히 들어가 있겠지만, 한씨는 그들의 이름을 굳이 거명하지 않는다. 대신, 미술계 인사 여섯 분의 이름을 꼽는다. 다음은 개정

판 『교실밖 지리여행』(사계절, 2006) 머리말에서 책이 나오기 까지 애써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하는 대목이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

“‘생활 속의 지리’라는 관점을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토론에 기여하여 주신 ‘지리교육연구회 지평’ 선생님들, 그리고 개정 작업을 격려하고 조언해 주신 ‘전국지리교사모임’을

비롯한 많은 동료 선생님들과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개정 작업을 지원해 준 사계절출판사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정을 표합니다. 특히 송○○ 씨가 아니었으면 이와 같은 형태와 내용으로 개정판이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사진을 비롯한 수많은 자료를 찾고, 또 글을 다듬어 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뒷에 걸렸다?

“정지영 아나운서에 이어 유명 미술가이자 방송인인 한젼마가 대필의 뒷에 걸려들었다. 출판계의 만연한 대필 스타 만들기 다음은 누구일까? <뉴스메이커>가 집중 추적했다.” 비록 시사주간지의 광고문구이기는 해도 “뒷에 걸려들었다”는 표현은 당치 않다.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 이름을 빌려준 책임이 그걸 꾸민 사람 못잖아서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대필이 아니라며 대필을 극구 부인하는 한젼마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별로 없다.

대필 스타 만들기가 출판계에 만연했다는



표현은 다소 부풀린 것이지만, 책의 내용보다 내용 외적인 요소가 책의 판매와 공신력을 좌우하는 건 사실이다. 책날개에 인쇄된 저자의 출신학교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모르긴 해도, 출판사들이 정지영씨와 한젼마씨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운 까닭은 두 사람의 용모가 수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궁색한 변명

한젼마씨의 대필의혹을 크게 다룬 <한국일보> 2006년 12월 20일자에는 한씨의 해명성 인터뷰와 명진출판 안소연 대표의 전화인터뷰 내용을 싣고 있다. 먼저, 한젼마씨는 “글맛을 내는데 대필 작가와 출판사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책이 독서계에 미친 영향은 간과하지 말아줬으면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수단을 써도 된다는 억지스런 주장이다.

또 한씨는 “나에게 책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경우 글 시작선을 다운시키는 등 책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썼다. 『그림 읽어주는 여자』가 상업성에 치우쳤다는 것은 아쉽지만 돈을 벌기 위해 한 것이 아니다.” 그럼, 뒷 때문에 책을 만드는데 참여했는지 궁금하다. 미술 작품 활동을 한 건가? 어쨌든 나는 상업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지만, 이 글은 돈을 벌기 위해 쓰고 있다.

자신의 책들을 “그림에 대한 소프트한 해설서”라고 보는 한젼마씨는 “나름대로 목적에 부합하는 반응을 얻었다는 점”을 평가하고 싶어 한다. 아무리 지고지순한 가치를 추구할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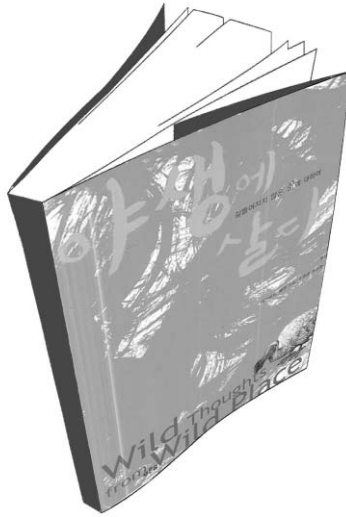
것을 이루려는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라. 거짓과 진실이 뒤엉킨 우리사회의 현실이 어디 하루 이들의 문제냐고,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냐 해도 이걸 정말 아니다. 안소연 대표 역시 허물을 지적하기보다는 공로를 높이 사야한다는 주장이다.

“한잼마씨는 나 때문에 책의 세계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유흥준 선생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같은 책을 쓰고 싶어

했다. 하지만 가벼운 터치로 가자고 많이 설득했다. 그렇게 하나의 장르가 만들어졌고, 한국 미술계에 대단한 공로를 했다. 책들이 허접해 보이지만 대중들이 그림에 친근감을 갖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런데 출판물이 다양해지려면 대필은 불가피하다식의 논리는 궤변에 가깝다. 안 대표는 대필을 하지 않으면 “문학하는 사람만 책을 내야 한다. 한잼마씨가 글까지 잘 쓰면 다들 기분 나빠 할 것이다. 그림 잘 그리고, 방송 잘 하고, 글까지 잘 쓴다면 누가 기분 좋아하겠는가”라며 영똥한 소리를 늘어놓는다. 다재다능하기는 어렵다고 하면 될 것을 말이다. 사실, 글과 그림은 별개다.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 빈치조차 그랬다.

“한번은 그는 ‘이 여덟 페이지에 물에 관한 결론 730가지가 있다’ 라고 뽐냈지만, 그에게 동정적이었던 한 학자는 이 허풍을 ‘내가 볼 때 물에 관해 쓴 그의 글은 전체적으로 보아 다소 실망스럽다’ 라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다 빈치는 그 주제에 큰 집착을 보였는데, 그러한 집착이 반드시 훌륭한 글로 이어지지는 않



았다. 그림은 글과는 상관없는 전혀 다른 분야다.”(데이비드 콤파넬, 『야생에 살다』, 이충호 옮김, 푸른숲, 69쪽)

개념 예술

물론, 글과 그림 둘 다에 재능이 출중한 사람이 전혀 없진 않으리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희소가치의 측면에서라도, 반가워 할 일이지 험뜯어서야 쓰겠는가. 나는 사람들이 어떤

이의 다재다능함에 시기와 질투의 눈길을 보낼 것 같진 않다. 한잼마씨, 안소연 대표의 인터뷰와 함께 실린 샘터사가 <한국일보> 기자에게 보낸 해명자료의 내용도 설득력이 없지는 마찬가지다.

“한잼마는 자신을 공공연히 작가라고 칭하지만, 그때의 작가는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문인이 아닌, 자신의 영감과 도전정신으로 새롭게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행위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이다. 한잼마의 대중 친화적 이미지와 강한 마케팅 능력을 간과한 상태에서, 대필 논란이 있는 타 작가의 틈바구니에 이번 출판 작업을 끼워 넣지 않기를 바란다.”

한씨의 출판 작업이 예술이라는 주장부터 살펴보자. 이에 대해 반이정 미술평론가는 <시사저널>(제898호, 2007년 1월 9일자)에 기고한 「예술의 경지에 이른 ‘기만적 대필’」에서 아래와 같이 반론을 편다.

“예술의 성과를 결과물보다 아이디어와 동일시하는 태도는 개념 예술(Conceptual Art)이 제기해온 쟁점이다. 개념 예술은 전통적 예술가의 역할을 부인하고 장인적 손놀림보다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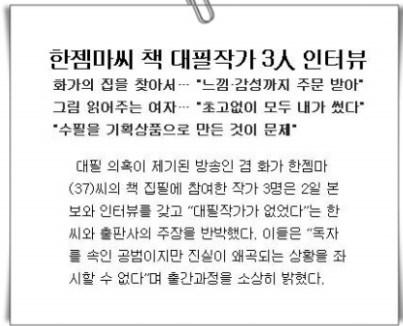
품에 대한 작가의 아이디어를 우선적 가치로 간주하며, 작품의 구현 과정과 기술은 제3자의 손에 일임하는 미학적 태도이다. 비록 1960년대에 태동한 예술 사조이기는 하나, 동시대 미술의 상당수는 작가의 아이디어를 손놀림보다 상위 개념으로 두기 때문에, 개념 예술은 당대적이다. 그렇지만 한씨의 주장처럼 출판물에 이런 미학적 태도를 적용시킨다면, 메모 수준이 아닌 작품 전

체를 제어할 만한 '완결된 아이디어'를 한씨가 제공했어야 이치에 맞고, 구성 작가와 출판 편집팀이 가세한 결과물인 점을 감안할 때, 저술의 실제 저자는 엄밀히 따져 출판 기획사로 표기되어야 옳다.”

더구나 한젼마씨는 정지영씨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 타이밍을 놓친 게 아쉽긴 해도 정지영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독자들에게 사과를 했다. 반면, 한젼마씨는 “출판을 이해 못하는 편파적인 대필 논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한국일보〉 2006년 12월 21일자)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샘터사도 “3년간 공들인 걸 인정해 달라. 기사가 출판계의 생리를 잘 모른다”(〈한국일보〉 2006년 12월 22일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지만, 정작 나는 한씨가 말하는 ‘출판’과 출판사가 얘기하는 ‘출판계의 생리’가 뭔지 잘 모르겠다.

역할 분담

〈한국일보〉 2007년 1월 3일자는 한젼마씨 책을 대신 써준 대필 작가 세 사람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씨와 대필 작가가 역할 분담을 어떻게 했는지 전한다. 『그림 읽어주는 여자』를 대필한 박 아무개 씨가 말하는 대필 작가의 '임무'는 이렇다.

“한씨에게 받은 기본원고는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썼다. 글에 녹아든 에피소드의 80~90%는 내 체험이다. 나머지는 한씨에게서 전해들은 얘기를 내가 각색해 집어넣었다. 그림의 경우 한씨가 고른 것 중에서 기획자와 내가 선택했

다. 한씨가 심하게 반대하지 않으면 그대로 반영됐다. 책의 서문과 뒤편의 여행사진 캡션은 기획자가 넣었다.”

다음은 대필자가 말하는 한젼마씨의 역할이다. “미술계의 인맥을 활용해 책에 넣을 국내 작품 저작권을 체결했다. 그림은 일단 한씨가 골랐다. 기획자 등의 요구로 그림을 바꿀 때도 한씨가 골라 왔다. 책이 나올 때까지는 임무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책 출간 이후 마케팅에서 역할이 더욱 빛났다.”

대필이 더 나빠

그러면 표절과 대필, 둘 중 어느 게 더 나쁠까? 대필이다. 표절은 베낄만한 남의 글을 고르고 실제로 베끼는 수고라도 하지만, 대필은 이름을 빌려주는 게 전부다. 단, 어떤 표절 행위는 대필에 가깝다. 베끼기를 남에게 시키는 경우가 그렇다. 아무튼 지난해 하반기 연거푸 그 실체가 드러난 대리번역과 대리집필 스캔들은 기획출판이 끊어터진 결과가 아닌가 싶다. (☹)